



# 여름밤 그리움의 시가 흐르는 우리 가곡

소프라노 오능희 독창회  
코로나에 지친 이들 위해  
귀익은 가곡 10여곡 선사  
'사랑가' 등 가야금 협연



서정적인 선율을 품은 가곡이 여름 밤 무대 위에 퍼진다. 소프라노 오능희(사진)가 펼치는 '그리운 가곡' 콘서트다.  
제주오페라연구소와 예술기획 오드가 주관해 7월 4일 오후 7시30분 제주대 아라뮤즈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정서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곡들로 채워진다. 코로나 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을 위로하고 우리 가곡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오능희는 이날 시를 노랫말로 쓴 한국가곡 10여곡을 준비했다. 첫 순서에는 '그대 있음에'(김남조 시, 김순애 곡), '내 마음'(김동명 시, 김동진 곡), '동심초'(김안서 시, 김성태 곡)를 들려준다. '신 아리랑'(양

영문 시, 김동진 곡), '사랑가'(임병걸 시, 정애련 곡), '연'(김동현 시, 이원주 곡), '강변 아리랑'(김성수 시, 정애련 곡)은 가야금 협연으로 선사한다. 1974년 초연되었던 황병기의 대표적인 가야금 독주곡 '침향무'도 이번 무대에 올려진다.  
추억 속의 가곡인 '산유화'(김소월 시, 김성태 곡), '못잊어'(김소월 시, 김동진 곡), '진달래꽃'(김소월 시, 김동진 곡), '내 맘의 강물'(이수인 시, 이수인 곡)도 무대 위에 흐른다. 마지막 순서엔 박목월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그리움'(이수인 곡)에 이어 '얼굴'(심봉석 시, 신상우 편곡), '목련화'(조영식 시, 김동진 곡)를 들을 수 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음악학과 특임교수인 피아니

스트 이영민이 반주를 담당하고 가야금 연주는 김남형이 맡는다.  
제주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오능희는 이탈리아 페스카라 아카데미, 캄포바소 국립음악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고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전문 오페라 과정, 오페라 해석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이번 공연에 대해 "코로나 여파로 도내 문화예술이 위축되어 있지만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계가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좌석 간 거리 두기로 134명만 입장 가능하다. 관람료 2만원.  
전선회기자 sunny@ihalla.com

## '감수광' 헤은이의 노래가 품어온 시대

제주소년 헌정곡 '헤은이'  
히트곡에 현대사의 기억

1975년 데뷔해 '당신은 모르실까야', '진짜 진짜 좋아해', '감수광', '새벽비' 등 수많은 곡으로 사랑을 얻었던 제주출신 가수 헤은이. 집집마다 TV가 한대씩 놓이기 시작하던 그 시절의 슈퍼스타로 지금도 '20대의 헤은이'는 유튜브를 통해 '레전드'로 소환되고 있다.  
'뭉'이란 노래로 우리에게 친숙한

제주소년이 그에 대한 헌정곡 '헤은이'를 내놓았다. '저 화면 속에서 노래를 하는 아름다운 이, 소녀가 나를 제주도 바람 저 언덕 너머 데려가는데'로 시작되는 노래로 '제주소년'의 박경환이 곡을 쓰고 가사를 지었다.  
박경환은 고등학교 시절 '경음악 편곡법'이라는 책으로 길옥윤 선생을 접했고 저자의 작품세계를 찾아 들으며 자연스럽게 헤은이를 알게 된다. 박경환은 '파란 나라', '피노키오' 등 어릴 때 들었던 피노키오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헤은이었다는 사



실에 놀랐다고 한다.  
그 일을 가슴에 담아뒀던 박경환은 올해 초 방영된 EBS 다큐멘터리 '싱어즈-헤은이 편'을 보게 된다. 당시 그 프로그램에서 "당신의 파란 나

라는 무엇 인가요?"라는 질문에 답변을 이어가다 끝내 눈물을 흘리던 화면 속 가수의 모습에서 헌정곡 '헤은이'가 만들어진다.  
슬픈 회상의 기운이 감도는 이 곡 전반엔 '제3한강교 건널 때마다 당신을 생각해오'(제3한강교),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열정), '경부고속도로 뚫리던 날'(뽀뽀뽀) 등 곳곳에 오마주 숨어있다. 하지만 단순히 가수에 대한 칭송을 넘어놓고 있는 건 아니다. 거기엔 우리 현대사의 기억이 배어있다. 제주소년은 '산악혁명', '민중 항쟁'과 같은 가사로 헤은이의 노래가 담아온 세월의 힘을 전한다.  
전선회기자

## 사랑이 지난 뒤... 10년 만에 묶은 노래

제주 김영현 두 번째 앨범  
6곡 수록 '그날 이후' 발매

제주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 김영현(사진)씨가 지난달 30일 두 번째 앨범을 냈다. 2010년에 이어 10년 만에 발매한 '그날 이후...'다.  
그는 코로나19가 안겨준 무기력함에 잠시 흔들리기도 했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린 뒤 틈틈이 써왔

던 음악노트를 꺼내 긴 시간 작업실과 녹음실을 오가며 이번 앨범을 제작했다.  
수록곡은 6곡에 이른다. 노랫말을 새기며 추억하고 싶은 날들을 떠올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졌다.  
'사랑이 지나간 후에'는 발라드곡이다. '연상로'에선 애잔한 그리움을 미디엄 포크에 실었다. '사랑이 끝날 때'엔 피아노와 더블베이스로 빛은 재즈선율이 흐른다. 강력한 록 기타 웨이브의 '오늘도 나는'도 들을 수 있다. 1집 앨범에 담겼던 '사랑이었어'는 경쾌한 포크곡으로 리메이크



했고 또 다른 1집 곡 '방황의 끝'은 더 깊어진 보컬로 다시 태어났다.  
앨범 발매일 전날 온종일 기대와 설렘,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이었다는 김영현씨는 "음악은 흑독하고 냉정한 것이기에 10곡 넘게 녹음한 곡들을 도려내기도 했다"며 "앨범 발매 콘서트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전선회기자

## 온라인 오페라 갈라콘서트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4일 오후 5시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펼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이번 무대는 7월 10-11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제주도립예술단 합동공연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팔리아치'를 사전 홍보하기 위한 자리다. 서귀포관악단 이동호 지휘자의 지휘와 이의주 연출가의 해설로 성악가 박현진, 이재욱, 정혜민, 박웅과 서귀포합창단이 출연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갈라콘서트를 통해 도민들이 도립예술단의 수준 높은 합동공연을 미리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고재만의

### 제주어기림환관

<210>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오뎅이 골맨. "하르바지-백록담 물 소품에 그 선심이 빠전마춤?"  
준데 골았지. "건 무슨 말이고? 그 선심이 곱닥한 자연 경관하고 말도  
곤곡 머심에 막 들은 흥엿젠 경호 뜻이 신겨어."  
하르바지 놀레하맨. "어허야 디어 어허야 디어 영주심경 / 우리 하르바  
님덜이 곱닥한 풍광이영 경치 좋은 열 밧덜 좇안 / 영주심경엿는 일  
림을 붙어신디 들어봄서 / 성산출일, 사봉낙조, 영구춘화, 정방하폭,  
굴림추쇄, / 녹담만설, 영실기암, 산방굴사, 산포조어, 고수목마라.

### \* 제주어 풀이

- \*소품(속, 솜, 쏘품, 속, · 숲) : <이름> 속, 안.
- \*선심(선생, 선승) : <이름> 선생.
- \*마춤(마시, 마찌, 마썸) : <썸> '비니까요'에 대응됨. 끝을 올림. ('철순 그런 디도 가마춤? / 철순 그런 데도 잘 감니까요? 따위).
- \*무슨 말이고? : 무슨 말이니?
- \*곱닥하다(곱드글락하다, 곱들락하다) : <그림> 곱다랐다.
- \*경호 뜻이 신겨어 : 그러한 뜻이 있는거야.
- \*영주심경 : 성산출일, 사봉낙조, 영구춘화, 정방하폭, 굴림추쇄, 녹담만설, 영실기암, 산방굴사, 산포조어, 고수목마.
- \*열 밧덜 좇안 : 열 군데를 찾아서.

-부호- / <이름> / <이름> (명사) / <그림> / <그림> (형용사) / <음적> / <음적> (동사) / <어적> / <어적> (부사) / <대어> / <대어> (대명사) / <뽀> / <뽀> (수사) / <노> / <노> (감탄사) / <토> / <토> (조사) / <메> / <메> (가립소) / <역> / <역> (역문말) / <속> / <속> (속말)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 한국문화사, 1991)

고재만 화백(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차에서 즐기는 '드라이브 인 콘서트'

### 제주대중음악 사운드브릿지

제주대중음악협회 사운드브릿지가 7월 5일, 12일, 19일 오후 5시 사운드 소울 주차장(제주시 여풍길 47)에서 '반하크라'란 이름으로 '드라이브 인 콘서트'를 이어간다.  
이번 콘서트는 비대면 공연 콘텐츠로 코로나19 사태 속에 문화 산업의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재능 기부' 방식으로 기획됐다. 관객들은 차량에 탑승해 무대 위 밴드

공연을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 즐길 수 있다. 유튜브 채널 '제주대중음악협회 사운드브릿지'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7월 5일엔 오네이릭랜드, 별소달소, 소리계떼, 사우스카니발이 출연하고 7월 12일엔 양지수, 흥조, 주년드, 젠얼론이 공연을 꾸민다. 7월 19일 출연진은 류준영, 흥어, 어찌다밴드, 디어아일랜드. 입장료는 차량당 1만원(20대 한정)이다. 예약 신청 010-2647-3578. 전선회기자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 남 수**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 농민 사랑**  
대표이사 부정 호

**축**  
CONGRATULATIONS  
**취 임**  
국제로타리 3662지구 20-21년도 제7대 총재



**고 권 진**

국제로타리 3662지구 20-21년도 제7대 총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양돈농협 임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승 진**  
제주교육박물관장



**홍 태 유**

제주교육박물관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도평향우회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 상**  
국제 우수작가 특별초대전 작가 대상



**변 인 구**  
(부: (故)변태임 · 모: 고여선)

(사)한국현대미술협회에서 개최한 『국제 우수작가 특별초대전, "작가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원주변씨 종량장공파 계반회**  
회장 변길용 외 회원일동